

전남도, 지역 특화 마이스산업 활성화 박차

순천·영암·해남·고흥 4개 시군 지원 회의시설·기자재 확충 등 시설 정비 고유 매력 갖춘 '유니크베뉴' 운영 "차별화 통해 마이스 관광도시 육성"

전남도가 자연·생태·문화 등 전남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마이스 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4개소를 선정하고 회의실 정비, 기자재 확충 등 마이스 기반 시설을 개선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사업은 전남 특화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활용 기반(인프라)을 구축해 지역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회의 시설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부터 영상·방송 장비 설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까지 마이스 환경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지역 문화·예술과 연계한 순천 문화예술회관과 영암 가

야금산조 기념관, 지역 역사와 연계한 해남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 전시관, 자연경관과 연계한 고흥 썬밸리 리조트 등 4곳이며 총 사업비는 1억2300만원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회의 기자재, 기초 편의 시설 등 마이스기반을 중점적으로 확충하고 중·소규모의 회의 유치 활동 지원 정책을 강화, 지역 마이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 지역 특색과 고유의 매력을 갖춘 차

별화된 마이스 행사 장소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여수의 GS칼텍스 예울마루 등 20개소를 유니크베뉴로 선정·운영하고 있다. 유니크베뉴는 단순 회의 기능을 넘어 여가, 문화, 관광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마이스 수요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 규모 기업 회의를 포함해 마이스 인센티브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

고 있으며, 마이스 설명회 및 팸투어, 박람회 전시·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최근 마이스산업은 미래 시장 개발 필요성과 중·소 도시에 대한 선호도 증가, 블레저 트렌드 확산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지역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마이스 육성을 통해 대표적 마이스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시, 올해 전기이륜차 213대 보급

최대 140만~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등 구매 혜택 확대

광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213대를 보급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46대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상반기 150대, 하반기 63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150대에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대체 구매 등 우선 대상자 15대, 배달목적 구매자 30대 물량이 배정됐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1대 1 매칭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단 최대 지원금 내에서 지원한다. 또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업인이 구매하면 추가 지급비율을

국비지원액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차종에 따른 국비지원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시스템 및 광주광역시 전기이륜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면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안을 새롭게 도입했다. 단,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이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더라도 중복 추가지원은 불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광주시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원동기 및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했거나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 및 단체 10대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 관련 상담과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까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5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명칭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6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 22개 지회 종사자들과 '전세사기 예방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천 결의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공인중개사협회, 전세 사기 예방 '맞손'

중개서비스 개선 결의대회 개최 6개 시·군 '안심계약센터' 운영

전남도는 16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와 전세사기 예방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도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함께하기로 다짐했다.

결의대회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도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전세사기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진행됐다. 행사에는 명칭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관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 등 650여명이 참석했으며 △따뜻한 보급자리 마련 앞장 △안심 계약환경 조성 △도민이 만족하는 중개서비스 질 개선 등에 동참키로 했다.

전세사기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일어난다는 불신을 종식시키고,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도 공정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위법·불법 없는 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전남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등 6개 시·군 민원실에 '안심 계약상담센터'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명칭환 부지사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협회 회원들도 부동산 전문 자격사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전세사기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며 "도민들도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관련 서류와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지혜 기자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충전식' 변경

전남도는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던 행복바우처 지급 방식을 기존의 선불식 기프트카드 지급에서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방식은 매년 신규 제작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포인트 사용자들도 카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사용액·잔액·사용 가능 가맹점 조회 등이 어렵다는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협전남본부와 협력해 변경기로 한 것이다. 지급 방식 변경에 따라 사용액, 잔액 등 알림 문자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행복바우처 대상자는 지난 2월까지 접수를 받아 선정됐으며, 이달 말 총 8만 4000명에게 1차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포인트는 올해 연말까지 각종 문화, 스포츠, 음식점 등의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곽지혜 기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월드 IT쇼 2024' 참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4'에 참가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1회째를 맞는 '월드 IT쇼 2024'는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 전시회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LG CNS,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등 3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4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광주경제자유구역 홍보관을 꾸려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인공지능(AI) 융복합 관련 기업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융복합기구를 중심으로 인력 양성부터 산업기반시설, 기술혁신기업이 집적돼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클러스터로 도약할 광주를 집중적으로 알린다. 또 인공지능(AI) 융복합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투자여건, 특전 등 정보를 제공한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시민참여형 광주천가꾸기 추진

하천정화·수질개선 활동 등 전개 기관·기업 등 참여기관 15곳 모집

광주시에 시민과 함께 하는 맑고 깨끗한 광주천 가꾸기에 나선다.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광주천 도심하천을 쾌적한 하천 생태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에 올해 시민참여형 광주천가꾸기에 참여할 기관·기업·시민단체 15곳을 이달말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에 5월부터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47개 기관과 함께 동구 용산동부터 서구 치평동 영산강 합류점까지 총 12.2km

구간 62곳의 광주천 정화활동을 시작한다.

참여기관들은 분기별로 △하천정화활동 △꽃밭·꽃길 가꾸기 △수질 개선활동 △외래종 및 생태교란식물 제거 △불법행위 단속 및 환경캠페인·교육 등 각종 하천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시에 지난 2019년부터 주관한 '시민참여형 광주천가꾸기' 사업은 그동안 무단투기 폐기물·쓰레기 수거와 예초작업 등 참여기관의 자발적 환경미화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에 우수참여단체와 기관에는 연말 표창 수여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환경공단이 광주천 가꾸기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참여 신청은 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https://www.gwangju.go.kr/>)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관리정책과(062-613-48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근 물관리정책과장은 "많은 기관·기업·시민단체가 광주천가꾸기에 참여해 일상에 지친 시민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